

한·방글라데시 수교 50주년: 개발협력 성과와 과제

노윤재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yjro@kiep.go.kr, 044-414-1143)

김민희 텔리사무소 연구원 (kmh@kiep.go.kr, +91-11-4075-8086)

차례

1. 방글라데시 경제 발전 및 협력 동향
2. 방글라데시 개발협력 현황
3.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개발협력 성과
4. 한·방글라데시 협력의 과제와 시사점

주요 내용

- ▶ 최근 10년간 연평균 6%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방글라데시는 꾸준한 대외원조를 통해 빈곤과 보건 등의 주요 문제를 개선하며 경제 발전을 이루었으며,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국가임.
 - 방글라데시 정부의 경제개혁과 함께 대외원조자금 및 외국인투자 등에 기반한 인프라 투자, 의류 부문의 지속적 수출증대 등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한 것으로 평가됨.
 - 방글라데시 정부는 교통, 통신, 에너지, 농업, 교육, 보건 등 주요 개발 분야에 꾸준히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방글라데시 총예산의 약 35% 정도를 차지함.
- ▶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ODA 수혜국으로, ODA는 주로 경제 발전과 인프라 구축에 활용되고 있음.
 - 최근에는 경제 및 에너지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전체 ODA 중 32%가 경제 발전을 위해 사용되었고, 이 중 75%는 인프라와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되었음.
- ▶ 한국 역시 방글라데시의 주요 공여국과 마찬가지로 방글라데시의 높은 성장세와 그에 따른 잠재력, 지정학적 중요성 등을 인지하며 2011년부터 방글라데시를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하여 ODA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 한국은 2021년도에 2억 3,630만 달러를 공여하며 전체 공여에서 다섯 번째로 큰 규모의 공여를 방글라데시에 시행하였으며, 이는 단일 공여국으로서는 일본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임.
- ▶ 최근 한국이 원조 예산을 확대하는 동시에 방글라데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인프라 구축 및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한·방글라데시 개발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방글라데시의 국가개발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 교육, 교통, 수자원·위생, 공공행정 분야 등 원조 역량이 높은 4개 중점협력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려고 함.
 - 방글라데시가 인프라 투자를 가속하기 위해 PPP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민간 자금을 활용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1. 방글라데시 경제 발전 및 협력 동향

- 방글라데시는 원조를 통해 빈곤과 보건 등의 주요 문제를 개선하며 경제 발전을 추진한 결과, 최근 10년간 연평균 6%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만큼 성장잠재력을 갖춘 국가로 평가되고 있음.
- 1971년 독립 이후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가난한 국가였던 방글라데시는 1975년 UN에 의해 최빈국으로 분류되어 상당 기간 원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음.
 - 1971~81년 사이에 방글라데시는 약 80억 달러 규모의 원조를 받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크게 뛰어넘는 지원을 받았음.
- 이러한 전 세계의 대규모 지원은 방글라데시가 빈곤과 보건 등의 주요 문제를 개선하는 개발 과제 수행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평가됨.¹⁾
- 방글라데시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세계 8위 인구의 거대한 내수시장과 더불어 주변 경쟁국에 비해 젊고 저렴한 풍부한 노동력이 뒷받침된 결과임.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에도 2020년 3.8%, 2021년 7.0%, 2022년 7.1%의 성장률을 보여주었고, 2023년에도 6%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²⁾
- 방글라데시는 경제성장을 향한 정부의 정책 추진과 민간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2015년 하위 중소득국(lower-middle income country)으로 진입하였으며, 더불어 빈곤율과 같은 사회지표를 개선해 2026년에는 최빈국(LDC: Least Developed Countries) 졸업이 예정되어 있음.³⁾
- 방글라데시의 경제성장 배경에는 기성복(RMG: Ready Made Garments) 중심의 의류 부문 제조업 발전을 촉진하는 국가적인 정책 기조와 인프라 구축에 투입된 대외원조가 있음.
 - 정부의 경제개혁과 함께 대외원조자금 및 외국인투자 등에 기반한 인프라 투자, 의류 부문의 지속적 수출 증대 등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방글라데시는 효과적인 장기 국가 정책을 통해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2100년까지의 국가 방향성과 목표를 제시한 ‘방글라데시 델타 플랜 2100(BDP2100: Bangladesh Delta Plan 2100)’을 발표함.
 - BDP2100은 △2031년까지 극심한 빈곤 퇴치, △2031년까지 중상위 소득 달성, △2041년까지 선진국 진입이라는 3개의 대목표 아래 장기적인 로드맵과 여러 전략을 포함하고 있음.
 -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Perspective Plan 2041(PP2041)’, ‘제8차 5개년 개발계획(8FYP: 8th Five Year Plan)’, 그리고 매년 개발 관련 목표를 위한 예산안인 ‘연간개발계획(ADP: Annual Development Programme)’ 등이 있음.
- 연간개발계획(ADP)은 에너지, 교통, 농업, 교육, 보건 등 주요 개발 부문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평균적으로 방글라데시 총예산 중 약 35%를 차지하며, 방글라데시 정부의 개발 정책 방향을 가장 잘 드러냄.

1) OECD/UNCTAD(2023), “Production Transformation Policy Review of Bangladesh: Investing in the Future of a Trading Nation, OECD Development Pathways,”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8b925b06-en>.

2) World Bank(2023), World Bank Open Data(검색일: 2023. 11. 27.).

3) 방글라데시의 빈곤율은 2010년 11.8%에서 2022년 5.0%로 감소.

- 2022/23 회계연도 ADP 예산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 통신, 에너지가 38%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농업 및 지역 개발이 26%, 교육이 21%, 보건의 4%를 차지함(그림 1, 2 참고).

그림 1. 방글라데시 2022/23 회계연도 예산안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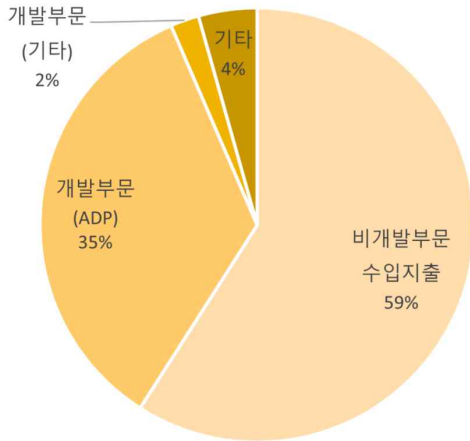


그림 2. ADP 예산안 구성(부문별)



주: Revised 2022/23 회계연도 기준.

자료: Ministry of Financ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2023), "National Budget Speech 2023-24," pp. 211-21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1973년 12월 수교 이후 지난 50년 동안 한국과 방글라데시 간의 양자 협력 관계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음.

- 1995년 방글라데시 KOICA 사무소가 개설되었고, 2014년 무상원조 기본협정 서명 등을 통해 체계적인 무상협력 수행 체계를 마련하였음.
- 방글라데시는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이자 주요 교역 파트너로 부상하여 향후 협력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음.
 - 2022년 말 기준 총 8,300만 달러 규모로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ODA가 진행됨(전체 수원국 중 5위).⁴⁾
 - 양국은 '한·방글라데시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채택하고, 한국은 이 전략에 따라 4대 중점 지원 분야(① 교육, ② 물위생 및 보건, ③ 공공행정, ④ 교통)에 원조를 하고 있음.
 - 또한 방글라데시 경제 발전 및 한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을 통해 유상원조를 지원하고 있음.
- 한국과 방글라데시의 교역 규모는 2008년에 13억 달러(수입: 2억 달러, 수출: 11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평균 15억 달러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최근 3년간 더욱 확대됨.⁵⁾
 - 한·방글라데시 교역 규모는 2021년 22억 달러(수입: 6억 달러, 수출: 16억 달러), 2022년 31억 달러(수입: 7억 달러, 수출: 24억 달러)를 달성한 데 이어 2023년 11월 기준 누적 21억 달러(수입: 6억 달러, 수출: 15억 달러)를 달성함.

4) ODA Korea(검색일: 2023. 11. 28.).

5) 한국무역협회(KITA) 무역통계(검색일: 2023. 12. 19.).

■ 본고에서는 한·방글라데시 수교 50주년을 맞아 개발협력을 중심으로 한 양국간의 협력을 살펴보고, 개발협력의 과제와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함.

-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원조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되며, 주로 개발협력과제에 이러한 자금이 활용되고 있음.
- 한편 한국은 방글라데시의 전체 원조 공여국 중에서도 상위에 속하는 국가로, 방글라데시의 개발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본고에서는 방글라데시의 개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과의 개발협력 상황을 확인한 후, 양국간 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려고 함.
 - 더불어 한국과 방글라데시 간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여 향후 협력의 추진 방향에 대한 과제와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함.

2. 방글라데시 개발협력 현황

가. ODA

■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세 번째 ODA 수혜국으로 원조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주로 개발협력과제에 자금이 활용되고 있음.

- 방글라데시는 시리아와 이집트에 이어 세 번째로 ODA를 많이 받는 국가이며, 초기에는 개발협력이 빈곤 완화, 농촌 개발, 재난 대비 등에 중점을 두었지만, 최근에는 방글라데시의 경제적 변화에 주목하며 인프라 구축 등의 경제 관련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ODA의 32%가 경제 발전 프로그램에 투입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인프라와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가 75%를 차지하고 있음.⁶⁾
-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공여국 중에서는 일본이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IDA(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EU(European Union) 등 다자기구를 제외하면 한국은 5위 공여 주체임(2021년 기준).
- 한편 방글라데시의 열악한 인프라는 경제성장 및 해외 자본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방글라데시 정부 역시 만성적인 재정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ODA 자금을 통한 인프라 구축 및 개선을 모색하고 있음.
 - 2019년 WEF(World Economic Forum)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인프라 경쟁력 순위는 141개국 중 114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프라가 열악한 수준임.⁷⁾

6) OECD/UNCTAD(2023), "Production Transformation Policy Review of Bangladesh: Investing in the Future of a Trading Nation, OECD Development Pathways,"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8b925b06-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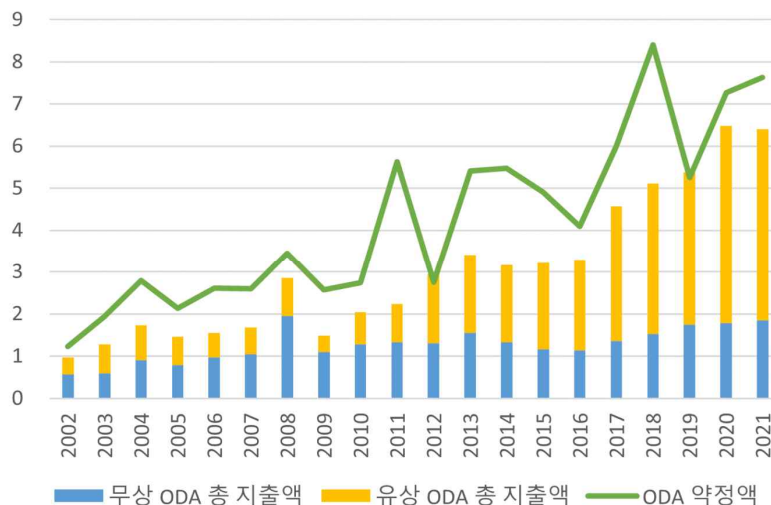
7) Klaus Schwab(2019),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 p. 82, World Economic Forum.

■ 방글라데시의 ODA 수원 규모는 지속해서 증가해온 가운데 2021년에는 총지출액 기준 64억 665만 달러(약정액 기준 76억 3,396만 달러)를 수원함(그림 3 참고).

- 2002년 방글라데시에 증여된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는 각각 5억 6,627만 달러와 4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이는 지속 확대되어 2021년에는 각각 18억 5,226만 달러와 45억 5,428만 달러를 달성함.
- 2002년부터 2011년까지는 유·무상 원조의 규모가 비슷하거나 무상원조의 규모가 컸으나, 2012년부터는 유상원조의 규모가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2021년도는 유상원조가 무상원조의 두 배 이상이 됨.
 - 통상 무상원조보다 유상원조의 사업 규모가 큰 것을 고려할 때 방글라데시의 경제 규모 확대, 원조 효과성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원조 사업의 규모와 중요성 역시 확대된 것으로 평가됨.
 - 대방글라데시 ODA 약정액과 지출액 모두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8년에는 ODA 약정액 기준 역대 최대치인 84억 886만 달러를 기록함.

그림 3. 방글라데시 ODA 수원 추이

(단위: 10억 달러)



주: 명목가액. Official Donor(DAC, Non-DAC, 다자기구, 민간기구).
자료: OECD CRS(검색일: 2023. 11. 21.).

■ 2002~21년 방글라데시의 ODA 누적 수원액 기준 대방글라데시 ODA의 최대 공여국은 일본, 최대 공여 기관은 세계은행임(표 1 참고).

- 세계은행은 대방글라데시 ODA 최대 공여 기관으로 2002~21년까지 누적 총액(613억 달러)의 약 27%에 달하는 166억 달러를 방글라데시에 공여함.
- 누적액 기준 2위이자 단일 공여국으로 1위를 차지한 일본은 2002~21년 누적 총액의 21.7%에 달하는 133억 달러를 공여함.
 - 이는 3위인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52억 달러)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임.
- 2021년도에 일본과 세계은행은 각각 총액(64억 달러)의 32.3%와 20.6%에 해당하는 20억 달러와 13억 달러의 ODA를 방글라데시에 공여함.

- 한국은 2021년도에 2억 3,630만 달러를 공여하며 다섯 번째로 큰 규모의 ODA를 진행하였으며, 단일 공여국으로는 일본, 미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함.

표 1. 대방글라데시 ODA 주요 공여국·기관(총지출액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연도	2021년		누적(2002~21년)	
		국가·기관	금액	국가·기관	금액
1		일본	2,065.65	세계은행	16,550.86
2		세계은행	1,325.20	일본	13,319.37
3		아시아개발은행	801.62	아시아개발은행	5,245.53
4		미국	445.45	영국	4,858.18
5		대한민국	236.30	미국	3,938.83
6		EU	234.52	EU	2,481.74
7		프랑스	181.29	IMF	1,663.07
8		독일	149.43	독일	1,553.53
9		영국	122.48	UN	1,320.64
10		UN	113.94	네덜란드	1,203.28
13		-	-	대한민국	1,035.41
		총액	6,406.65	-	61,334.72

주: 명목가액. Official Donor(DAC, Non-DAC, 다자기구).
자료: OECD CRS(검색일: 2023. 11. 21)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 방글라데시 주요 공여국인 일본, 미국, 영국 등은 공통적으로 방글라데시의 지정학적 파트너로서의 중요성과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빈곤 완화, 사회적 안정성 강화 등 역시 중점적으로 고려하며 개발협력을 진행하고 있음.

- 일본은 방글라데시의 경제적 잠재력을 높게 평가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평화로운 인도-태평양(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 전략을 기반으로 해양 안보 및 남아시아에서의 중국 견제 등의 배경으로 방글라데시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⁸⁾
 - 최근 일본의 대방글라데시 ODA에서는 운송 및 저장, 에너지 등 경제 인프라·서비스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보건 및 위생, 교육 등의 분야에도 지속 공여
- 미국 역시 방글라데시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경제 및 인적자원 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방글라데시의 빈곤 퇴치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⁹⁾
 - 이에 △농업 및 식량안보, △보건, △민주주의, 인권 및 거버넌스, △교육, △환경,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재난 대응 및 공동체 회복력 구축, △로힝야 난민 대응 등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¹⁰⁾
- 영국 국제개발부(DFID: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는 방글라데시의 △빈곤 완화 및 농촌 인프라 개발, △초등 교육, △보건 및 영양, △인구 및 위생, 안전한 식수, △도시개발, △민간 부문의 인프라 구축 지원 및 제도 개혁 등에 초점을 맞추어 방글라데시의 사회경제적 개발에 기여하고 있음.¹¹⁾

8) Ministry of Foreign Affairs, Japan(2017), *Diplomatic Bluebook 2017*.

9) USAID(2023), *Bangladesh 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CDCS)*.

10) USAID(2023. 6. 8.), *Our Work*. <https://www.usaid.gov/bangladesh/our-work>(검색일: 2023. 11. 22.).

11) Bangladesh High Commission London. *Economic Cooperation*, <https://bhclondon.org.uk/economic-cooperation>(검색일: 2023. 11. 22.).

- 대방글라데시 ODA는 교육, 보건 등의 사회 인프라·서비스 부문과 에너지, 운송·저장 등의 경제 인프라·서비스 부문에 집중되어 있음(표 2 참고).
- OECD CSR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21년까지 방글라데시 ODA 누적액 중 사회 인프라·서비스 부문이 약 42%(258억 808만 달러), 경제 인프라·서비스 부문이 약 27%(166억 1,918만 달러), 다분야·교차 부문이 약 8.7%(53억 2,287만 달러)를 차지함.
 - 사회 인프라·서비스 부문에서는 교육(74억 5,249만 달러), 보건(58억 618만 달러), 정부·시민사회(45억 3,864만 달러) 순으로 ODA가 공여됨.
 - 경제 인프라·서비스 부문은 에너지(73억 9,693만 달러), 운송·저장(64억 9,476만 달러), 금융 서비스(14억 6,865만 달러) 순임.
- 2021년도 역시 사회 인프라·서비스 부문(28억 7,778만 달러)과 경제 인프라·서비스 부문(19억 3,065만 달러)에 가장 많은 금액이 할당됨.
 - 사회 인프라·서비스 부문에서는 보건(12억 8,358만 달러), 교육(4억 1,017만 달러) 순으로, 경제 인프라·서비스 부문에서는 운송·저장(10억 1,974만 달러), 에너지(7억 9,191만 달러) 순으로 ODA가 공여됨.

표 2. 대방글라데시 부문별 ODA(총지출액)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1년	누적(2002~21년)
사회 인프라·서비스	2,877.78(44.92%)	25,808.08(42.08%)
교육	410.17	7,452.49
보건	1,283.58	5,806.18
인구정책·생식보건	92.38	1,977.84
수자원·위생	261.20	2,899.18
정부·시민사회	284.52	4,538.64
기타 사회 인프라·서비스	545.90	3,133.73
경제 인프라·서비스	1,930.65(30.14%)	16,619.18(27.10%)
운송·저장	1,019.74	6,494.76
통신	6.21	328.76
에너지	791.91	7,396.93
금융 서비스	58.74	1,468.65
비즈니스·기타 서비스	54.03	912.06
생산	506.54(7.91%)	3,264.07(5.32%)
농업·임업·수산업	273.45	2,057.75
산업·광업·건설업	121.93	923.89
무역 정책 및 규제	111.15	280.67
관광업	0.004	1.75
다분야·교차	286.65(4.47%)	5,322.87(8.68%)
일반 환경 보호	46.80	724.29
기타 다분야	239.85	4,598.58
물품·일반 프로그램 지원	49.33(0.77%)	3,417.75(5.57%)
인도주의적 지원	652.02(10.18%)	4,193.76(6.84%)
총액	6,406.65	61,334.72

주: 명목가격. 본 표의 총액에는 부채 관련 비용, 공여국의 행정 및 난민 관련 비용, 미할당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구분에는 미포함.
자료: OECD CSR(검색일: 2023. 11. 21.).

나.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 방글라데시 정부는 1990년대부터 PPP 사업 모델의 성공을 경험함에 따라 관련 정책 기반을 지속 확대하고 PPP를 활용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적극 발굴하며 관련 투자를 유치해옴.¹²⁾

- 방글라데시 정부는 1990년대부터 PPP를 활용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해온 가운데 2010년에는 「민관협력 파트너십 정책 및 전략(PPP Policy and Strategy 2010)」을 발표하며 관련 규제 및 절차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이후 2015년 발표한 민관협력법(PPP Act)을 기반으로 총리실 산하의 민관협력청(PPPA: Public Private Partnership Authority)을 출범, 국내 PPP 사업을 총괄함으로써 관련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민관협력청은 PPP를 통한 공공 인프라 및 서비스 개발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관련 재원 마련, 사업 감독 및 지원, 관련 부처간 협력 모색 등의 역할을 수행

■ 방글라데시는 민관협력청을 통해 한국을 비롯한 일본, 싱가포르 등의 국가와 양해 및 협력 각서(MoU/MoC)를 체결하여 수송, 제조업,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부문에서 PPP 사업을 진행함(표 3 참고).¹³⁾

- 민관협력청은 2017년부터 일본, 싱가포르, UAE 등과 양해 및 협력 각서를 체결하며 관련 협력을 적극 모색하는 가운데 이외에도 중국, 튀르키예, 인도, 캐나다 등과 양해 및 협력 각서 체결을 논의하고 있음.
- 한국은 2019년 4월 민관협력청과 양해각서를 체결, 현재 철도, 고속도로, 상수도를 건설 및 개선하는 5개의 사업을 진행하는 등 방글라데시 PPP 사업의 주요 협력국임.¹⁴⁾
- 2023년 7월 기준 총 78개의 PPP 사업이 허가되어 진행 중인 가운데 주요 부문은 수송(19개), 제조업(17개), 보건의료(7개) 등임.¹⁵⁾
 - 일본은 도로, 공항 터미널, 하수도 등을 건설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며, 싱가포르와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터미널 건설 사업을 진행 중임.

12) PPP는 정부와 계약한 민간 주체가 공공 인프라의 재원 조달, 건설, 관리 등을 책임지는 형태의 사업임. 자료: Saeed Ahsan Khalid(2022. 5. 15.), 「전문가오피니언 방글라데시 민-관 협력사업의 잠재력과 당면 과제」, https://www.kiep.go.kr/aif/issueDetail.es?brdctNo=329449&mid=a302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2&search_region=&search_area=1¤tPage=1&pageCnt=10(검색일: 2023. 11. 27.).

13) PPPA(2023), *PPPA Annual Report 2022-23*.

14) 양해 및 협력 각서를 체결한 국가와 정기적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을 점검하고, 우선사업권을 제공하는 등의 혜택이 있음. PPPA(2023), *PPPA Annual Report 2022-23*, p. 25.

15) PPPA, PPP Projects, <https://www.pppo.gov.bd/projects.php>(검색일: 2023. 11. 27.).

표 3. 방글라데시 민간협력청 협력 현황

국가	양해·협력 각서 체결일	주요 PPP 사업명
일본	2017. 6.15./ 2022.10.5.	- 외곽순환도로 건설 - 차토그램-콕스바자르 고속도로 개선 - 카말라푸르(Kamalapur) 철도역 복합 허브 구축 - 나비나가르(Nabinagar)-마니크간즈(Manikganj)-파투리아(Paturia) 고속도로 공사 - 하즈라트 샤할랄 국제공항 제3터미널 개선 및 유지관리 - 파텐가(Patenga) 저수지를 위한 차토그램 하수도 공사
싱가포르	2018.3.12.	- 베이 터미널 건설
UAE	2019.2.7.	- 베이 터미널 건설
한국	2019.4.1.	- 순환 철도 건설 - 다카-조데푸르(Joydevpur)-마이멘싱(Mymensingh) 고속도로 개선 공사 - 메그나강의 불타(Bhulta)-아라이하자르(Araihazar)-반사람푸르(Bancharampur) 도로 건설 - BSMSN(Bangabandhu Sheikh Mujib Shilpa Nagari) 상수도 사업 - 푸르바칼(Purbachal) 신도시에서 배전 시스템 지하화를 통한 확장
덴마크	2021.6.30.	-
사우디 아라비아	2021.10.28.	- 파텐가 컨테이너 터미널 구축

자료: PPPA(2023), *PPPA Annual Report 2022-23*, pp. 24-25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 국제기구 역시 방글라데시 인프라 구축에서 민간 협력을 적극 장려하는 가운데, 2022년 12월 아시아개발은행은 방글라데시 인프라 개발 사업에서의 PPP를 위한 2억 7,829만 달러의 차관 지원에 합의함.¹⁶⁾

- 이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형 에너지 효율성(smaller energy efficiency) 개선, 재생 에너지 개발, 사회 인프라 개발 등을 위한 민간 자금 조달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본 차관 지원은 2017년 개시한 2억 6,000만 달러 규모의 첫 번째 PPIDF-3(Third Public-Private Infrastructure Development Facility)에 이은 두 번째 PPIDF-3 지원으로, 최소 5개의 인프라 사업과 2개의 재생에너지 및 효율성 사업에 지원될 것으로 예상됨.
 - 앞서 지원된 첫 번째 PPIDF-3는 차관 지원 이후 인프라 사업 8개와 재생 에너지 및 효율성 사업 2개에 약 4억 5,700만 달러의 민간 투자를 촉진
- 아시아개발은행의 방글라데시 PPP 지원 및 방글라데시의 관련 사업 확대는 한국 기관 및 기업의 방글라데시 인프라 개발 참여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¹⁷⁾

16) The Business Standard(2022. 12. 27.), "ADB signs agreements for \$528 million loans to Bangladesh," <https://www.tbsnews.net/economy/adb-signs-agreements-528-million-loans-bangladesh-558530>(검색일: 2023. 11. 22.).

17) 대한경제(2023. 1. 16.), 「국제금융기관 지원받은 방글라·PPP 플랫폼 속도 별까」,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01101435311620541>(검색일: 2023. 11. 22.).

3.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개발협력 성과

- 한국 역시 방글라데시 주요 공여국과 마찬가지로 방글라데시의 높은 성장세와 그에 따른 잠재력, 지정학적 중요성 등을 인지하여 2011년부터 방글라데시를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ODA를 지원하고 있음.¹⁸⁾
 - 한국은 풍부한 노동력, 제조업 성장을 기반으로 한 높은 경제성장세, 중국, 인도 등 주요 신흥국과의 접근성 및 해양 안보상의 지정학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방글라데시를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며 ODA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 2022년 개정된 ‘방글라데시 국가협력전략(CPS)’을 기반으로 한국의 강점과 방글라데시의 개발협력 수요를 고려하여 △교육, △에너지·교통, △보건·사회 보호, △수자원·위생, △ICT를 중점 분야로 선정함.
 -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ODA는 ICT 등의 분야에서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의료 시스템 및 위생을 개선하는 등의 보편적인 사회 인프라·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송전망, 도로 등의 경제 인프라·서비스 개선을 통해 방글라데시 경제성장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중점 분야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발표한 ‘제8차 5개년 개발계획(경제성장)’, ‘PP2041(빈곤 완화 및 경제성장)’, ‘BDP2100(수자원 관리·개발)’, ‘Digital Bangladesh(디지털 개발)’ 등의 정책을 고려하여 선정
- 한국은 1990년대부터 대방글라데시 원조를 시행하여 매년 총지출액을 안정적으로 증액해온 가운데, 최근에는 유상원조와 비구속성 원조 중심으로 원조를 진행하고 있음.
 - 매년 변동 폭이 큰 약정액에 비해 총지출액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증가하며 2021년도 약정액과 총지출액은 각각 1억 6,502만 달러와 2억 3,630만 달러를 기록함(그림 4 참고).
 - 2010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ODA 총지출액 규모와 전체 원조 중 유상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확대됨.
 - 2010년 총지출액 중 유상원조가 83.6%(4,714만 달러)를 차지했으며, 2021년에는 90.2%(2억 1,329만 달러)를 기록
 -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주요 공여 기관인 수출입은행(EDCF 위탁 운용 및 관리)과 KOICA는 2021년도에 각각 1억 9,024만 달러와 1,584만 달러를 공여함(표 4 참고).
 - 이외에도 외교부(438만 달러), 교육부(107만 달러), 기상청(8만 달러) 역시 각 부처와 기관별 대외협력 자금을 활용하여 방글라데시에 원조 사업을 시행
 - 한국은 OECD의 비구속성 원조 비중 확대 기조에 맞추어 2021년도 한국이 약정한 대방글라데시 총 ODA(1억 6,501만 달러) 중 96.7%에 달하는 1억 5,965만 달러를 비구속성 원조로, 536만 달러를 구속성 원조로 약정함.¹⁹⁾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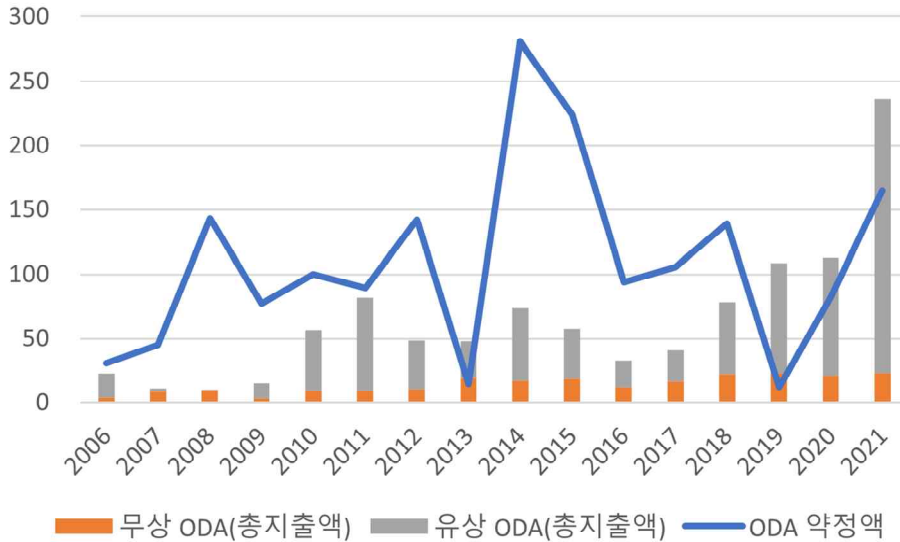
18) 관계부처합동(2022), 「방글라데시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19) ODA Korea(검색일: 2023. 11. 27.).

20) 이는 2020년 OECD DAC 국가들의 비구속성 원조 비율인 82.3%와 2021년 한국의 전체 ODA 중 비구속성 원조 비율인 66.4%를 크게 상회하는 비율임. OECD(2022), *2022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Korea(검색일: 2023. 11. 27.).

그림 4.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유무상 ODA 공여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명목가액. OECD CRS에서는 2003~05년간의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2006년부터 표기.
자료: OECD CRS(검색일: 2023. 11. 21.).

표 4. 최근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ODA 주요 공여 기관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기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액
1	수출입은행 (EDCF)	50.35	76.50	82.23	190.24	67.56	466.88
2	KOICA	16.06	16.13	12.59	15.84	14.32	74.94
3	외교부	5.00	4.00	4.80	4.38	-	18.18
4	교육부	0.07	1.59	0.60	1.07	0.20	3.83
5	기상청	-	0.16	1.56	0.08	-	1.80
총액		72.08	98.97	102.52	212.16	82.94	568.67

주: 증여등가액. 명목가액. 당해연도 기준 및 신규 약정 사업 종합. 순위는 총액 기준.
자료: ODA Korea(검색일: 2023. 11. 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ODA에서는 보건, 수자원·위생 등의 사회 인프라·서비스 부문과 운송·저장, 에너지 등의 경제 인프라·서비스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표 5 참고).

- 2006~21년까지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ODA 누적액 중 사회 인프라·서비스 부문은 약 55%(5억 6,823만 달러), 경제 인프라·서비스 부문은 약 37.9%(3억 9,235만 달러), 인도주의적 지원 부문은 약 2.9%(3,038만 달러)를 차지함.
- 누적액 기준 사회 인프라·서비스 부문 중에서는 보건(1억 6,986만 달러), 수자원·위생(1억 3,578만 달러)에, 경제 인프라·서비스 부문 중에서는 운송·저장(2억 520만 달러), 에너지(1억 1,315만 달러)에 많은 비중의 ODA가 공여됨.

- 누적액과 마찬가지로 2021년도 역시 보건(2,735만 달러), 수자원·위생(2,230만 달러) 등의 사회 인프라·서비스 부문(1억 7,560만 달러)과 운송·저장(4,911만 달러), 에너지(13만 달러) 등의 경제 인프라·서비스 부문(4,936만 달러) 순으로 ODA가 공여됨.

표 5.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부문별 ODA(총지출액)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1년	누적(2006~21년)
사회 인프라·서비스	175.60(74.42%)	568.23(54.95%)
교육	20.54	109.28
보건	27.35	169.86
인구정책·생식보건	0.86	7.36
수자원·위생	22.30	135.78
정부·시민사회	4.33	36.43
기타 사회 인프라·서비스	100.19	109.50
경제 인프라·서비스	49.36(16.41%)	392.35(37.94%)
운송·저장	49.11	205.20
통신	0.06	73.46
에너지	0.13	113.15
뱅킹·금융 서비스	0.03	0.32
비즈니스·기타 서비스	0.01	0.20
생산	2.71(2.56%)	24.24(2.34%)
농업·임업·수산업	1.84	14.52
산업·광업·건설업	0.85	8.09
무역 정책 및 규제	0.006	0.93
관광업	-	0.69
다분야·교차	2.00(2.4%)	16.73(1.62%)
일반 환경 보호	0.01	0.87
기타 다분야	1.99	15.856
인도주의적 지원	5.70(4.07%)	30.38(2.94%)
총액	236.30	1,034.15

주: 명목가격. 본 표의 총액에는 미할당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구분에는 미포함.

자료: OECD CSR(검색일: 2023. 11. 21.).

■ 최근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ODA 주요 사업은 보건, 수자원 관리 및 위생, 도로·운송, 교육 등의 부문에서 진행됨(표 6 참고).²¹⁾

- [보건] 2022년에는 EDCF를 통해 2024~31년 동안 'BSM(Bangabandhu Sheikh Mujib) 의대 베타바반 종합전문센터병원 건립 사업'에 2억 4,636만 달러(약 3,278억 원)를 지원하기로 새롭게 약정함.
 - 앞서 한국은 EDCF를 통해 2016~24년간 방글라데시 'BSM 의대 종합전문센터병원 건립 사업'에 1,460억 원 규모의 차관을 약정 및 지원한 바 있음.
 - 본 사업은 방글라데시 최초 센터 중심의 전문병원 설립을 통해 선진 의료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21) 관계부처합동(2023),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요구액 기준)」, 제4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46-1호).

- [수자원 관리] ‘반달쥬리 상수도 개발 사업’에 2017~24년간 9,700만 달러(약 1,160억 원)를 지원한 데 이어 2021년에는 4,700만 달러(약 563억 원) 추가 지원을 약정함.
- [도로·운송] ‘철도 신호 시스템 현대화 사업(6,261만 달러)’, ‘지능형 운송체계(ITS) 활용 국가 간선도로망 안전성 강화 사업(893만 달러)’ 등의 운송 부문에 유·무상 원조 지원을 약정함.
- 이외에도 ICT 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고 관련 인프라 지원 및 교원 연수를 지원하는 사업과 ICT, 항공 경영, 공공정책 등 다양한 학문의 석사 학위 과정 지원하는 사업, 로항야 난민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통해 방글라데시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에 기여함.

표 6. 최근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주요 ODA 사업

(단위: 백만 달러)

사업명	약정액	약정연도	수행기관	비고
BSM 의대 베타바반 종합전문센터병원 건립 사업	246.36	2022	EDCF	-
지속가능 경제회복 프로그램 차관	100.00	2021	EDCF	-
친환경 CNG 버스 구매 사업	77.44	2022	EDCF	-
철도 신호 시스템 현대화 사업	62.61	2018	EDCF	2차
코로나19 긴급 대응 프로그램 차관	50.00	2020	EDCF	-
다카 상하수도청 국제교육연구센터 건립 사업	47.62	2022	EDCF	-
반달쥬리 상수도 개발 사업	47.00	2021	EDCF	보충용자
해양 아카데미 교육시설 개선 사업	42.69	2018	EDCF	-
지능형 운송체계(ITS) 활용 국가 간선도로망 안전성 강화 사업	8.93	2020	KOICA	-
기술교육 및 청년 취업 강화 사업	8.50	2018	KOICA	-

주: 2018~22년간 약정액 기준 10개 사업. 2022년도는 잠정 금액.
자료: ODA Korea(검색일: 2023. 11. 21.)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최근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및 ESG 확대 추세와 함께 방글라데시가 기후변화 취약국임을 고려하여 한국 역시 기후변화 관련 대방글라데시 ODA 지원 확대를 모색하고 있음.

- KOICA는 세계식량기구(WFP)와 2018년부터 방글라데시 서북부지역에 ‘제로 형거 달성을 위한 재난복원력 구축 사업(460만 달러 규모)’을 진행하여 기후변화 및 재난 대응역량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²²⁾
 - 본 사업은 홍수 대응 관련 소액보험 제공, 기상 예측을 기반으로 한 금융지원 서비스, 재난 대응 생계 훈련 등을 포함한 가운데, 꾸리그램 지역 약 4,000가구의 관련 대응역량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
- 2023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Global Net Zero Connection in Korea’에서는 방글라데시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 10개국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력 방안 및 체계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사업 발굴을 모색하고 있음.²³⁾
 - 본 행사에서 참가국은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 및 관련 수요를 공유하는 한편, 녹색기후기금(GCF),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등의 국제기구는 관련 국제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있음.

22) KOICA(2020. 1. 16.), 「코이카, 방글라데시 기후변화 대응 지원 사업 성과 발표」, https://koica.go.kr/koica_kr/990/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29pY2Ffa3IIMkYxNTElMkYzNTYzNDQlMkZhcjRjbFZpZXcuZG8lM0ZwYWdlJTNEMSUyNnNyY2hDb2x1bW4lM0QlMjZzcmNoV3JkTjNEJTl2YmJzQ2xTZElM0QlMjZiYnNpcGVuV3JkU2VxJTNEJTl2cmdzQmduZGVtHllM0QlMjZyZ3NFbmRkZVN0ciUzRCUyNmlzVmld01pbmUlM0RmYWxzZSUyNnBhc(검색일: 2023. 11. 15.).

23) etnews(2023. 11. 10.), 「산업부-KOTRA, 부산서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 개최」, <https://www.etnews.com/20231110000031>(검색일: 2023. 11. 23.).

- 2022년 약정한 ‘친환경 CNG 버스 구매 사업(7,744만 달러)’은 방글라데시 내의 운송난을 해소하는 한편 대기오염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는 2009년에 약정 및 지원된 바 있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CNG 버스 구매 사업(543만 달러)’의 약 14배에 달하는 규모의 차관임.

■ 최근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한·방글라데시 인프라 개발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방글라데시 인프라 구축에 있어 한국 기관 및 기업의 진출과 관련 민관협력(PPP)을 적극 장려하고 있음.

- 2019년 4월 해양수산부는 방글라데시와 정부간 ‘항만 개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후 한국기업 컨소시엄은 방글라데시 정부에서 발주한 1,000만 달러 규모의 치타공, 파이라, 칸푸르 등 지역의 항만 컨테이너 설계 및 감리 사업을 수주함.²⁴⁾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2022년 다카에 한-방 인프라 협력센터를 설립하고, 정례적인 G2G 공동협의체를 통해 신규 인프라 사업을 발굴하고 한국 기관 및 기업의 우선사업권 확보 협상 및 배타적 수의계약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 및 기관의 진출과 관련하여 민관협력을 적극 장려하고 있음(글상자 1 참고).
 - 이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케냐에 이어 4번째로 설립한 인프라 협력센터로, 방글라데시 인프라 구축에 한국의 기술 및 경험을 공유하며 방글라데시의 경제성장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장려하기 위함임.
 - KIND는 2019년 민관협력사업청(PPPA: Public-Private Partnership Authority)과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다섯 차례의 공동협의회를 통해 여섯 개 사업의 우선사업권을 확보, 이후 실제 우리 기업들이 수주하는 성과를 거둠.

글상자 1. KIND의 주요 활동

- [2019.4.] KIND는 방글라데시 PPPA와 투자개발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G2G 차원에서 ‘한-방 공동협의체(Joint Platform)’를 운영하고, 인프라 구축 사업의 우선사업권(배타적 수의계약) 확보 및 사업화를 논의
- [제1차 공동협의체(2019.7.)] 다카 순환 철도(85억 달러), 다카-마이멘싱 고속도로(5억 달러), 송전선로(400kV)(2억 달러) 등 3개 사업의 우선사업권 확보를 논의
- [제2차 공동협의체(2020.1.)] 제1차 회의회에서 제안된 도로, 철도, 송전선로 3개 사업의 우선사업권 확보
 - 방글라데시 PPPA에서는 3건의 사업(△몽글라 항만 루즈벨트 독 재건 및 확장 사업, △미르푸르(Mirpur) 지역 통합형 주택단지 개발 사업, △칸 자한 알리(Khan Jahan Ali) 공항 개발 사업)를 제안
- [제3차 공동협의체(2020.11.)] 메그나 대교 건설 사업(10억 달러) 우선사업권 확보
- [제4차 공동협의체(2021.3.)] 푸바찰 신도시 배전선로 건설 및 운영 사업(7억 달러) 우선사업권 확보
- [제5차 공동협의체(2023.8.)] BSMSN(Bangabandhu Sheikh Mujib Shilpa Nagar) 경제구역 용수공급 사업(10억 달러) 우선사업권 확보

자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웹사이트(검색일: 2023. 11. 22.)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24) 엔지니어링데일리(2021. 10. 12.), 「해외 진출국 탐방①-방글라데시」 20억 명 서남아의 교두보 방글라, SOC건설 무한대, <https://www.eng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08>(검색일: 2023. 11. 22.).

4. 한·방글라데시 협력의 과제와 시사점

■ 방글라데시는 남아시아에서 그 경제적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주요국들의 개발계획에서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한국에도 중요한 국가임.

- 방글라데시는 인도, 중국과 인접하여 벵골만을 통한 해상 연결성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남아시아의 전략적 중심지로 중국, 인도, 일본 등이 방글라데시를 남아시아 전략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인도의 ‘주변국 우선 정책(Neighborhood First Policy)’은 방글라데시를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로 여기며, 남아시아에서는 인도의 최대 교역국으로 인식되고 있음.
 -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BRI: Belt and Road Initiative)’ 및 일본의 ‘벵골만 산업벨트 전략(BIG-G)’과 같은 주요 국가들의 개발계획에 중요한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음.
- 일본, 미국, 영국 등이 양자·다자 간 채널을 활용하여 대방글라데시 원조를 지속 확대해온 가운데 한국 역시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으나 대방글라데시 원조 규모를 지속 확대해 왔음.
- 주요국들이 방글라데시를 전략적 거점으로 선정하고 다양한 전략을 펼치는 가운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방글라데시에 관한 관심이 낮았음.
 - 일본은 방글라데시와의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2026년 체결 및 2027년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한국은 방글라데시와 협력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나, 최근 한·방글라데시 EPA 추진을 위한 논의를 개시함.²⁵⁾
- 2026년 최빈국(LDC) 지위 졸업을 앞둔 방글라데시 정부가 향후 보완책으로 무역 상대국과의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포함하여 제도 개선, 교역 조건 변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발맞추어 한국도 방글라데시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최근 한국의 원조 예산 규모 확대와 방글라데시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 및 개선 사업 시행을 고려할 때, 추후 한·방글라데시의 개발협력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한국의 2023년도 대방글라데시 ODA 확정액은 795억 원(양자 무상: 186억 원, 양자 유상: 609억 원)이나 2024년 요구액은 약 99억 원 감소한 696억 원(양자 무상: 225억 원, 양자 유상: 471억 원)임.²⁶⁾
 - 대방글라데시 ODA 규모는 2024년 요구액 기준 중점협력국 27개국 중 12위를 차지함.
- 그러나 방글라데시는 2024년도 EDCF 기본약정(F/A) 규모 증액의 주요 대상국으로, 이를 기반으로 대형 랜드마크 사업 발굴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현재까지의 방글라데시 ODA 사업이 성공적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2023년 5월에는 ‘한·방글라데시 EDCF 기본약정(F/A)’을 통해 2023~27년간 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을 30억 달러로 증액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7억 달러(2021~25년)보다 4배 이상 확대된 금액임.²⁷⁾

25) 한국관세신문(2023. 11. 7), 「글로벌 공급망 확대 및 교역 확대를 위한 한·방글라데시 비즈니스 포럼 개최」, <https://www.kc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6162>(검색일: 2023. 12. 19.).

26) 관계부처합동(2023),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요구액 기준)」, 제4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46-1호).

- 본 약정을 체결하면서 EDCF와 경협증진자금(EDPF: Economic Development Promotion Facility)을 공동으로 활용한 '다카 지하철(MRT: Mass Rapid Transit) 4호선 건설 사업'에 한국기업 참여를 위한 양해각서도 함께 체결함.
 - 방글라데시 정부 역시 ODA를 통한 인프라 구축 및 개선 사업을 적극 진행함에 따라 추후 한·방글라데시의 관련 협력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방글라데시의 국가개발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 원조 역량이 높은 중점협력 4개 분야(교육, 교통, 수자원·위생, 공공행정)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방글라데시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을 통한 성장 가속화와 삶의 질 개선 등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한국은 ODA를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 [교육] 방글라데시는 경제성장을 위한 양질의 인적자원 공급과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 보장 등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으며, 해외 취업을 위한 숙련 기술 근로자 양성에도 관심이 있음.
 - 한국은 직업훈련 모델 개발과 주요 제조업 및 ICT 산업 분야의 직업 교육 훈련에 강점이 있어, 관련 협력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음.
 - [교통] 방글라데시는 다카, 치타공 등 주요 도시 내 체계적 교통 인프라의 부족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인식되어 있음.
 - 한국은 체계적인 국토개발계획 수립의 경험이 있고, 교통체계 관련 ICT 시스템에서 비교우위가 있음.
 - 또한 한국 건설 및 엔지니어링 업체들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로 한국의 기술 수준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수자원·위생] 방글라데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 인프라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상정하였으며,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어 왔음.
 - 한국은 수자원 관리 기술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보유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과 홍수 예보 시스템 구축 등에 기여할 수 있음.
 - [공공행정] 방글라데시는 '디지털 방글라데시'를 내세워 정부 시스템의 표준화와 전산화를 통한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어 디지털 분야 협력의 수요가 높음.
 - 한국은 단기간 내에 전자행정 시스템 및 대국민 행정 서비스를 구축하여 전자정부 시스템 강국으로 성장한 경험이 있음.
- 효과적인 한·방글라데시 개발협력을 위해 △다양한 자금조달 방안 모색, △국가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다자간 협력 강화, △민간 부문 참여 유도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자금조달 방안 모색]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ODA 지원 규모는 증가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대규모 사업 추진 면에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음.
 - 대규모 사업에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바, 이를 위해서 다양한 자금조달 방안이 필요함.

27) 기획재정부(2023. 5. 4), 「한·방글라데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및 다카 지하철 건설 사업 협력 양해각서 체결」,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3. 11. 22).

-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관과의 협력, 민간 부문의 참여, 기업과의 파트너십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국가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방글라데시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양국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공동 계획 수립이 요구됨.
 - 방글라데시와의 전략적동반자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협력 영역을 다변화해야 함.
 - 단기적 무역·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EPA, 나아가 FTA를 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음.
- [다자간 협력 강화] 다양한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자금 확보, 기술 및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다자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특히 방글라데시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가장 민감하면서 동시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인 만큼, 국제사회의 대방글라데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지원이 활발함.
 - 한국은 방글라데시에 양자적 지원뿐만 아니라 주요국 또는 국제기구 등과 3자 협력을 통한 지원을 이행하는 등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민간 부문 참여 유도] 방글라데시는 인프라 투자 가속화를 위해 PPP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한국은 민간 재원을 활용한 대형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설립한 한-방 인프라 협력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정례적 채널 이외에도 신규 인프라 사업 발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KIEP**